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보도자료		Asia' s Best Defense Networking Platform	
배포일시	2024. 02. 13 14:00	보도일시	2024. 02. 13 오후		
담당부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상철 운영위원장 박춘중	연락처	010-5075-6986 010-3937-1995		
홈페이지	www.dxkorea.org	이메일	hjko@dxkorea.org		

‘지상무기 전시회 계룡대 활주로 개최’ 보도(2.12) 관련 입장

일부 매체가 보도한 ‘지상무기 전시회 9월 25일 계룡대 활주로 개최’ 관련, 대한민국방위산업전 조직위원회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K-방산의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지난 10년 동안 전시회를 주최해왔던 DX KOREA 조직위원회는 2024 국제 방산 전시회 주최 관련 논란과 혼선에 대하여 매우 죄송하고 송구한 심정입니다.

특히 그동안 함께 전시회를 주최했던 육군발전협회가 별도의 전시회를 주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진솔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 제6회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2024)은 9월 25일(수)부터 28일(토)까지 KINTEX에서 국제인증 전시회로 정상개최 됩니다.

지난 10년간의 DX KOREA 전시회 주최 경험을 토대로, 접근성과 시설 면에서 뛰어난 KINTEX 전시장 6, 7, 8홀과 10홀 등 4만1232㎡에 이르는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대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올해 전시회를 역대 최대규모로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위원회도 발족하였습니다.

둘째, 국내 및 해외 방산기업들의 참가신청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50여 개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해외기업 및 국가관 참가신청과 문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위원회는 참가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전시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 이라고 신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방산전시회가 범정부 차원의 공공분야 산업전시회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국방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과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을 비롯, 산업통상자원부의 KODITS와도 협력하여 방산수출 상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KOTRA해외 바이어 유치 지원사업에도 DX KOREA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의 제대군인 취업박람회 공동 개최 및 동반성장위원회와도 협력하여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국제 방산전시회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방산전시회의 주인은 바로 방위산업의 주축인 기업과 임직원이며, 육군은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기업들이 비즈니스 미팅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국내외 국방 및 방산 관련 귀빈들이 더 많이 전시회장을 찾도록 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었던 육군 장비와 장비들의 동원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적 브랜드로 잘 성장해온 DX KOREA 국제 방산전시회를 뒤로하고 전시 공간상 많은 제한사항과 국내외 방산기업들에게 극심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천막시설에서 동기간에 유사 전시회(KADEX)를 개최하게 된다면, K-방산의 국제적 위상추락을 초래할 것입니다.

육군발전협회의 계룡대 활주로 개최에 대하여 참가기업들도 매우 난색을 표하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첨단 무기 전시회를 가설 천막에서 하는 경우는 없다며 99%의 예산을 참가사가 부담하는 행사를 어떤 명분으로 누구의 편의를 위해 충청도 까지 가야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DX KOREA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발전협회가 불법적으로 주관사 입찰과 낙찰을 하고 비상식적인 불법행위로 유사 방산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X KOREA 조직위원회는 지난 1월 초 대승적 차원에서 육군발전협회에 함께 협력하여 방산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그동안 킨텍스 장소를 빼앗겠다고 고집하다가 어려워지자 엉뚱하게 계룡대 활주로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계룡대 개최에 관한 업체들 의견을 종합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룡대 활주로에서는 10월 초에 육군의 지상군페스티벌, 계룡시의 군문화 축제가 동시에 개최. 이들 행사는 상당 기간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이어서 육군발전협회가 갑자기 끼어들어 KADEX를 먼저 개최하게 된다면 다른 행사가 심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음. 또 이미 준비 중인 다른 행사에 얽혀서 쉽게 돈벌이를 하려는 속셈이라는 비난도 면치 못할 것임.

둘째, KADEX 프로그램 중 일부는 지상군페스티벌 및 군문화 축제에서 이미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육군 첨단장비 전시와 체험행사, 군관련 컨퍼런스 등 각종 행사 및 이벤트와 중복돼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음.

셋째. 방위산업전시회는 방산기업이 생산하는 무기체계를 전시해 무기 수입대상국 결정권자 및 획득관계자를 초청해 설명하고 상담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임. 계룡대에서 KADEX를 개최할 경우 방산기업이 다양한 무기체계를 이동하거나 전시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

넷째, 계룡대는 해외 VIP 및 바이어들은 물론 각종 행사에 참여할 전문가그룹 등이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멀고, 주변에 숙박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열악해 국제적인 방위산업전시회를 치르기에는 한계가 있음.

다섯째, 세계 7위 규모로 성장해온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전시회가 계룡대에서 천막 시설 행사로 치러지게 되면 K-방산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새만금 잼버리 대회처럼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우려가 큼.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돈벌이 때문에 행사장소를 계룡대로 변경한 육군발전협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

DX KOREA 조직위원회는 지난 10년간의 국제 방산전시회 개최 경험과 검증된 능력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DX KOREA 2024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K-방산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